

# 문원주 “트레이서 자부심…연기 포기 안하길 참 잘했죠”

‘트레이서’ 속 늦깎이 공무원 ‘고동원’ 역으로 존재감 각인  
“몇 수 앞 내다보는 임시완 보며 반성…손현주 가장 존경”

배우 문원주(42)는 배역을 맡을 때마다 “친구 사귀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상상하며 편지를 쓰고, 익숙해지면 그 역할로 일기를 쓴다. 때면 다른 사람 삶에 가까워지며 흥미를 느끼는 편이다. 웨이브 드라마 ‘트레이서’ 속 늦깎이 공무원 ‘고동원’은 처음 해보는 캐릭터였지만 “가장 편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돌보이려고 욕심 부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내려놓으니 한결 편해진 모습이다. 트레이서는 누군가에게 편견보다 무서운 곳 국제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에 굴러온 ‘황동주’(임시완) 활약을 그렸다. 동원은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 1팀 팀원이다. 업무가 많고 희생정신도 없지만, 마음이 약해 실수를 채우지 못했다. 펀수끼가 가득한 성격 탓에 미워할 수 없었다. “본인 연기는 평생 봐도 부족해 보일 것 같다. 때면 아쉽다. 욕심을 내면 더 이상해지는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편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다. 동원은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익살 맛도 재미있는 역이다. 국제청에 왜 들어왔고 5국1팀 안에서 원하는 게 뭐냐? 고민했다. 평소 밝은 역을 연기할 때 어두운 면을 보고, 어두운 역을 연기할 때는 밝은 면을 보려고 했다. 촬영하면서 나의 예전 모습도 들여다봤다.”

촬영 전 국제청 자료조사도 했지만, 세무공부를 완벽히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제청 내부 조직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김현정 작가가 워낙 디테일하게 써 극본을 보면 대부분 이해했다”며 “배우들끼리도 ‘작가님이 10년 고민하면서

쓴 것 같다’고 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문원주는 첫 회부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원은 화가 난 민원인이 던진 흥시를 온몸으로 받았다. 잔내 넘치는 표정과 호들갑스러운 몸짓이 인상적이었다. 문원주는 “촬영하면서도 재미있었다. 좀 더 맞길 원했다”며 “흥시철이 아니라서 아이스 흥시로 맞았다. 상상한 거보다 약한 느낌이었지만 화면에서는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5회에서는 동원이 동주와 함께 ‘서혜영’(고아성)을 끌고 사무실로 나오는 장면이 웃음을 줬다. 임시완(34)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며 “마지막회에서 동주가 떠날 때 들어올리는 것도 시완이 아이디어였다. 함께 작업한 친구 중 제일 톡톡하다”고 극찬했다. “시완이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 생경하고 살아있는 장면들 만들었다”며 “어쩔 거렇게 영리할까? 싶었고,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다. 세트에서 촬영할 때 별로일 것 같다고 생각한 신이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니 정말 좋더라. ‘애장난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현재만 본다면 시완이는 미래 앞을 몇 수 내다보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5국 1팀 반장 ‘안경희’(전이령), 팀원 ‘김한빈’(문수인)과 호흡도 빛났다. 전이령(41)은 중앙대학교 연극과 한기수 선배라며 “학교 다닐 때 함께 공연을 많이 했는데 작품으로 만난 건 처음이다. 그때도 의지를 많이 했는데, 누나가 배려를 많이 해주 재미있게 촬영했다. 수인이는 성격이 워낙 좋다. 중간에서 막내 역할 해주고 추진력도 좋아서 사적으로 술도 많이 마셨다”고 했다.

애초 트레이서는 웨이브에서만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MBC TV 금토극으로도 방송했다. 시즌1은 시청률 7~8%대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등으로 자주 결방해 흐름이 끊겼다. 시즌2는 웨이브에서 전 회차를 한 날에 공개하고 MBC에서 뒤늦게 방송했다. 시즌2 마지막 8회는 9.0%(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찍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문원주는 “예전에는 시청률에 많이 집착했다”면서도 “이승영 PD님께 촬영이 다 끝난 후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그중 하나가 ‘자부심 갖게 해주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첫 방은 MBC로 봤는데 너무 긴장해 웨이브로 볼 때 더 좋더라. 극본뿐만 아니라 연출도 훌륭했다. PD님이 똑심있게 연출해 편집에서도 다 드러났다. 모든 회차 두 세 번씩 봤고 볼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었다”고 털어놨다. “시즌3를 꼭 했으면 좋겠다”며 “오영(박용우)이 국제청장 되고, 위기를 겪을 때 5국1팀이 어떻게 활약하는 지가 그려지지 않을까. 동주가 지방에서 올라오고, 5국1팀 팀원들이 반대 세력에 맞서 좀 더 전문성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레이서 팀워크는 빛을 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회식 한 번 못했지만 “초반부터 서먹함 없이 편했고, 가족처럼 지내 끈끈함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손현주(57)가 중심을 잡아줬고, 임시완의 리더십과 고아성(30)의 배려심, 박용우(51)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뤘다. 특히 문원주는 손현주에게 존경심을 드러냈다. “학교 선배인데 작품에서는 두 번째 호흡을 맞췄다. 처음 봤을 때 ‘함께 하게 돼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했다. 다른 배우들과는 편한데, 선배는 워낙 존경해 바라보게만 된다. 연



기하면서 범접할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지더라. 세트장 밖까지도 에너지가 퍼졌고, 상대방이 연기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트레이서 배우들 모두 잘했지만 손현주 선배 연기는 압권이었다. 후반부에 동원이 ‘인세준’(손현주) 청장을 계속 미행하는데, 부딪히거나 한 장면에 담긴 신이 한 번도 없어서 아쉬웠다.”

문원주는 연극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후 2005년 영화 ‘잠복근무’(감독 박광춘)로 데뷔했다. ‘모던보이’(감독 정지우·2008) ‘방자전’(감독 김대우·2010) ‘투혼’(감독 김상진·2011) 등에서 활약했다. 드라마 ‘녹두꽃’(2019)을 시작으로 ‘스토브리그’(2019~2020) ‘크라임 퍼즐’(2021)에 연이어서 출연하며 주목 받았다. 중간에 슬럼프도 겪었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기를 계속 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았다. 차기작도 확정된 상태다. SBS TV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와 영화 ‘비2밀’로 열일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원주는 서울 자양동에서 ‘문연기학원’도 운영 중이다. 수많은 후배들을 가르쳤지만, SNS에 남긴 것처럼 ‘촬영할 때가 가장 좋다’고 미소지었다. 짚었다. 지난해 트레이서와 크라이미퍼즐을 동시에 촬영하고 대학원까지 다녔다. “학원 운영하면서 VR 사업하고, 연극 치료사에도 도전하는 등 정신없이 지냈다”며 “촬영장에 가는 게 소풍 가는 느낌이었다. 20~30대에는 내 자신을 잃고 연기에 현장 나가기가 싫을 때도 있었다. 지금은 못하는 모습도 인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작품이 끝날 때마다 조금씩이 찾아온다. 박용우 선배가 ‘그러지 말라’면서 ‘조금 더 지나면 훨씬 많이 일 할 수 있다’고 조언해주더라. 스스로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것 같다. 요즘 강아지를 돌보면서 부성애를 많이 느낀다.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부성에 연기를 해보고 싶다. 물론 극을 끌고 가고 싶은 욕심도 있다.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하.”

## 미국 출국하는 BTS, 그래미 어워즈 수상 유력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일정 소화할 위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RM, 진, 슈가, 지민, 뷔 등 다섯 멤버가 모습을 드러냈다. 출국하는 멤버들은 개개인마다 개성있는 출국 패션을 선보였다. RM은 편한 후드티, 진은 상·하의 모두 꽃무늬가 새겨진 ‘정정 패션’을, 슈가는 깔끔한 니트, 지민은 비니로 포인트를 줬고, 뷔는 갈색 재킷 아래에 꽃무늬 셔츠를 받쳐 입었다.

정국은 시상식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이홉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완치 후 일정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미국 출국은 내달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참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 시상자로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무대를 장식해 4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버터(Butter)’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버터’는 작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총 10주간 1위를 차지했다. 그해 최장 1위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부문에 2년 연속 노미네이트됐는데, 올해는 해당 부문 수상이 유력하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 ‘우이혼2’ PD “극한의 통곡과 분노…대본 없는 ‘생’ 리얼 방송”



TV조선 예능물 ‘우리 이혼했어요’ 이국용 PD가 첫 방송을 앞두고 관련 포인트를 공개했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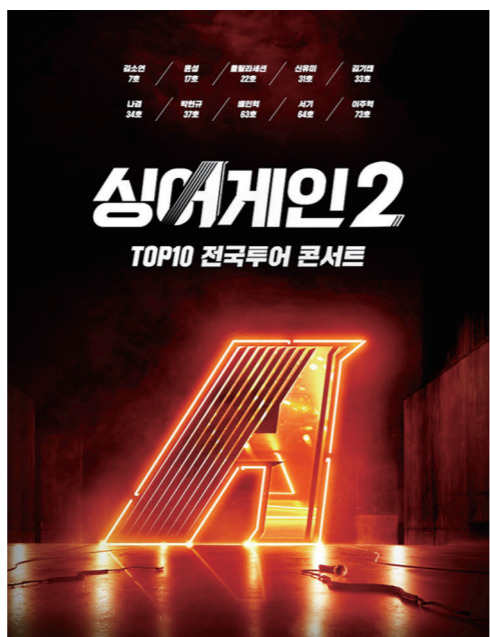
다음달 8일 TV조선 첫 방송

된 이혼 부부가 만나 함께 생활해보면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단순히 재결합 목적이 아닌 새로운 인간관계로 이혼 부부의 삶을 그린다. 29일 공개된 일문일답에서 이국용 PD는 “시즌1에서 이혼이라는 과격적인 소재를 다루는 것이 생소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시즌2에서는 출연자들이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본인의 감정과 입장을 과감하게 쏟아낸다. 이전 시즌에서 볼 수 없었던 극한의 통곡과 분노를 볼 수 있다”고 예고했다. 갈라선 부부에게 출연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국용 PD는 섬의 난항에 기획을 얹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시즌2 섬의 과정 역시 산 넘어 산이었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방송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단번에 출연을 결정한 부분은 없었다. 진심을 대해 방송 콘텐츠와 기획 의도를 설명드리고 설득했다. 최종적으로 거절한 부부도 많았다. 이혼을 자극적으로 풀어

내는 방송이 아니니 용기를 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즌2 출연자 특징도 언급했다. 이국용 PD는 “나한일·유혜영 부부는 두 번의 이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라이·지연수 커플은 요즘 젊은 부부답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상반된 이혼 부부의 모습이 재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도 공개했다. 이국용 PD는 “일라이 씨가 지연수 씨에게 아들을 보여달라며 끊임없이 갈망하는 부분이 있다. 제작진 모두 가슴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다. 나한일 씨가 거실에서 유혜영 씨 잡든 모습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때도 로맨틱하고 가슴이 찡했다”고 털어놓았다. 이국용 PD는 “이혼 부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출연자와 제작진 접촉을 최소화한다. 제작진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생(生)’ 리얼이다. 스케치북이나 대본이 아예 없다”고 ‘우이혼’의 리얼리티를 자신했다. ‘우리 이혼했어요2’는 오는 4월8일 첫 방송 된다.

## ‘싱어게인2’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팅 시작

‘싱어게인2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를 시작했다. JTBC ‘싱어게인 시즌2-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2’) TOP10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오는 4월 9일부터 매주 개최된다. ‘싱어게인2 TOP10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는 4월 9일 부산사직체육관을 시작으로, 4월 16~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4월 23일 대구 엑스코 동관 6홀에 이어 청주(4월 30일), 창원(5월 7일), 울산(5월 14일), 천안(5월 21일), 강릉(5월 28일), 인천(6월 4일), 수원(6월 11일), 광주(6월 18일), 고양 일산(7월 2일)까지 12개 도시에서 개최를 확정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구, 청주, 창원 등의 티켓 예매가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부산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 작년 “난 공주가 아니다”라던 윤여정, 올해 오스카 패션도 빛나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참석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에서 선택한 패션이 작년 이어 올해도 빛났다. 윤여정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시상상을 돕기 위해 참석했다. 지난해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그는 전년도 수상자가 시상자로 나서려는 관례를 따랐다. 시상상을 위해 윤여정이 선택한 옷은 바로 샤넬의 2020년 F/W 당시 나온 드레스다. 가격은 690만원대다. 해당 제품은 출시된 해에 배우 이성경도 시

상식에서 입을 적이 있다. 또한 그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진행하는 #난민과함께(#WithRefugees) 운동의 하나로 진행되는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해 반전에 대한 의견을 냈다. 윤여정은 ‘편안함’ ‘단정함’과 함께 자신의 우아함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는 작년 아카데미 수상 당시에도 돋보였던 면모다. 지난 해 미국 패션지 ‘보그’가 선정한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드레서’이기도 한 그는 이집트 출신의 디자이너 마마르 할림의 2017년 F/W 컬렉션 제품을 입었다. 당시 스타일링을 맡은 스타일리스트 엘빈고는 미국 매체 ‘페이지 식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해 몰려든 의상만 250

벌이 넘었고 화려한 장식의 의상도 많았지만 윤여정은 ‘난 공주가 아니다. 난 나답고 싶다’며 물리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타들이라며 더 돋보이고 싶은 텐데 윤여정은 ‘난 돋보일 필요가 없다…난 큰 보석도 필요없고 너무 화려한 스타일은 싫다’고 말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